

‘제1호 국가과학자’에 이서구·신희섭씨

— 과기부, 연간 15억원씩 최장 6년간 지원 —



‘제1호 국가과학자’에 이서구(이화여대/63) 교수와 신희섭(한국과학기술연구원/56) 박사 2명이 선정됐다.

과학기술부는 지난 11월 14일 국가과학자위원회를

열어 각계의 추천으로 접수된 국가과학자 후보 6명 중에서 이 교수와 신 박사를 국가과학자로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국가과학자는 ‘제1호 최고과학자’였던 황우석 전서울대 교수의 논문조작 사건으로 명칭이 최고과학자에서 변경된 것으로, 명칭 변경 이후 이 교수와 신 박사가 처음으로 국가과학자의 영예를 안았다.

이서구 교수는, PLC라는 효소를 처음으로 분리정제하고 유전자를 찾아내어 그들이 여러 호르몬 세포신호전달에 참여하는 기전을 규명하고, Prx라는 새로운 항산화효소를 발견, 항산화 연구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함과 아울러 활성화산소의 세포내 신호전달역할에 관한 연구를 본격적인 궤도에 올려놓은 업적이 높게 평가되었다.

신희섭 박사는 ‘유전자 녹아웃 기법’을 사용, 특정 유전자가 돌연변이된 생쥐를 제조한 후, 돌연변이의 결과로 나타나는 증상을 다양한 기법으로 분석하여 이를 통해 뇌기능을 ‘분자에서 행동까지’ 밝히는 등 지난 10년간 우리 나라 신경과학 연구를 세계 수준

으로 높이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하였고, 특히 T-타입 칼슘이온통로 연구를 통하여 뇌의 ‘의식-무의식 상태’를 조절하는 핵심 기전을 규명하였으며, 나아가 수면조절·간질·통증치료기술 개발의 길을 열기도 하였다.

임 관 국가과학자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국가과학자 심사 과정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연구업적을 낸 많은 과학기술자가 활발히 연구를 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으며, 또한 본 연구사업을 발판으로 우리 나라의 많은 과학기술자들이 세계 연구중심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가과학자 심사는 과학기술관련단체(학회, 협회, 대학, 연구소 등)에서 추천한 총 19명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국과학재단(이사장 권오갑)에서 4개 분야별로 각 10명의 전문평가단을 구성하여 1단계 전문분야 심사를 한 후, 이들의 연구업적과 향후 연구잠재력을 종합 심사(각 분야 전문가 15인으로 구성)하는 2단계 평가 절차를 거쳤다. 종합심사위원회에서는 6명의 후보자를 국가과학자 위원회에 추천하고, 국가과학자위원회는 이들 6명을 대상으로 각 단계 심사위원장으로부터 심사 의견을 청취한 후 비밀투표를 거쳐 2명을 최종 선정하였다.

국가과학자연구지원사업은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 성과를 내었거나 과학기술인상 수상 등 그 우수성이 세계적으로 입증된 국내·외 과학기술자에 대해 국가가 특별히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년 1~2명을 선정(총 10명 규모)하여 연간 15억원 내외의 연구비를 최대 6년 동안 지원하게 된다.

‘ITER 공동이행협정’ 서명

— 핵융합에너지 시대를 맞이할 대형국제사업 본격 참여 —



지난 11월 21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공동이행협정’ 서명식에 우리 나라가 참석하여 공식 서명하였다고 과학기술부가 밝혔다.

프랑스 시라크 대통령 주재로 파리 엘리제궁에서 개최된 이번 서명식에는 김우식 과기부총리를 비롯하여 EU 집행위원장(J. M. Barroso), 중국 과기부 장관(서관화), 인도 원자력부 장관(A. Kakodakar), 미국 에너지부 차관(R.

Orbach) 등 각국의 장관급 인사를 비롯한 참여 7개국의 대표단 80여 명과 각국 외신 기자들이 참석했다.

이로써 내년 상반기에 ITER 기구(ITER Organization)가 공식 출범하게 되면 무한·청정 대용량 에너지인 핵융합 에너지의 상용화를 위한 ITER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날 이루어진 ‘ITER 공동이행협정’ 서명은 21세기 에너지 문제를 해결해 줄 핵융합에너지 개발 프로젝트에 우리 나라도 주요 선진국들과 대등하게 참여하여 핵융합에너지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또한 국내소요 에너지의 97%를 수입에 의존하는 세계 10대 에너지 소비국인 우리 나라에 있어 에너지의 안정적인 개발 및 확보는

‘제26회 과학기술인테니스대회’ 열려



곱게 물드는 장충공원을 찾은 과학기술인들은 서로의 소식과 안부를 전하며 그 동안 갈고 닦은 테니스 기량을 겨룬 결과 우승은 노년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정봉영 - 이분수, 장년부 한국체육학회 성영호 - 조근중, 청년부 포항산업과학연구원 도용환 - 장순기조가 각각 차지해 시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각 부별로 준우승 및 3위에 이어, 개인에게 주어지는 감투상, 미기상, 매너상 노력상에 대한 시상도 있었다.

과학기술인의 친선과 체력단련 및 과학기술 관련단체간의 유익적인 연합을 도모코자 마련된 제26회 과학기술인테니스대회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주최로 지난 10월 27일 서울 중구 장충테니스코트에서 개최됐다.

총 21개 단체 40개팀 80여 명이 참가한 이번대회는 예년과 같이 노년부(60세 이상), 장년부(50~60세), 청년부(50세 미만)로 나뉘고, 경기방식은 예선-리그, 결선-토너먼트를 채택, 2명이 한조를 이룬 복식으로 진행됐다.

산학연 연구현장과 일상의 고단함을 하루만이라도 접고 단풍이



청년부(왼쪽)와 장년부 우승조



국가경제 및 안보에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 ITER 참여를 통한 핵융합에너지 개발은 에너지 중주국의 지위를 갖는다는 것에도 의미가 있다.

ETRI 최문기 원장 취임



2006년 11월 20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제5대 원장에 최문기 박사가 공식 취임했다.

신임 최 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IT 분야 신기술 창출을 위한 중추적인 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국민 소득 2만 달러 시대를 열어나가는 데 핵심적인 원동력이 되고, 고용 효과와 시장유발 효과가 큰 기술 개발로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 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원장은 1978년 ETRI에 입사해 21년간 근무한 뒤 99년 한국정보통신대학교(ICU)로 옮겨 IT경영학부 교수로 재직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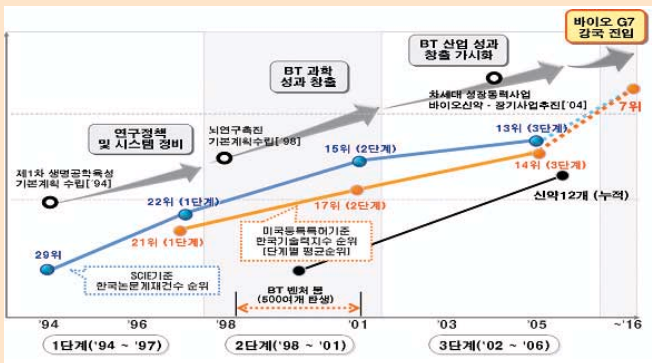
과기부, 이공계 대학원 연구장학생 선발 본격 시행

- 금년에 510명(석사 350명, 박사 160명) 선발, 지원 -

과학기술부는 국내 이공계 대학원의 연구역량 강화와 대학원생들의 독창적인 우수논문 장려를 위해 「이공계 대학원 연구장학생」 제도를 2006년부터 도입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제2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 'Bio-Vision 2016' 확정

- 2016년까지 총 14조원 투입, 세계 7위 생명공학기술 강국 진입 -



정부는 2007년부터 10년 동안 총 14조2천881억 원을 투자하여 2016년까지 생명공학분야 세계 7위의 기술 강국 진입을 목표로 하는 '제2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2007~2016)'인 『Bio-Vision 2016』을 생명공학융합정책심의회(위원장 과학기술 부총리)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Bio-Vision 2016'은 지난 1994년 수립되어 올해로 종료되는 제1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에 이은 것으로 1차 기본계획 동안의 확보된 연구기반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산업화를 위한 핵심 인프라 강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

국내 생명공학분야는 지난 10여 년간 정부의 1차 생명공학육성

기본계획의 적극적인 추진에 힘입어 비교적 짧은 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면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였다.

SCIE(Science Citation Index Expanded : 확장된 과학기술 논문 인용 색인) 논문 수 기준으로 보면 1994년 세계 29위에서 2005년 13위로, 특허를 통해 본 기술력지수는 1994~1997년 21위에서 2002~2005년 14위로 상승하였고, 바이오 산업 국내 시장규모도 '94년 대비 14배 증가하여 600여 개의 벤처 기업이 활동중이며 기초과학 역량의 축적을 바탕으로 세계적 신약 창출 등 최근 산업적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Bio-Vision 2016'은 1차 기본계획의 성과 및 시사점, 국내외 환경 분석을 기반으로 건강한 '생명중심 사회'와 풍요로운 '바이오경제' 구현을 비전으로, 세계 7위의 논문 및 특허기술 수준 제고, 60조 원 규모의 시장 창출 등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생명공학 육성체계 혁신', '연구개발 선진화 기반 확충', '바이오 산업의 발전 가속화 및 글로벌화', '법/제도 정비 및 국민 수용성 제고' 등의 4대 전략, 14대 실천과제를 수립하고, 생명과학, 보건의료, 농축산·식품, 산업공정/환경·해양, 바이오융합 등 5대 분야별 세부계획도 마련했다.

이번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은 생명공학육성법에 따라 과학기술부(주관), 교육인적자원부 등 8개 관련 부처가 공동으로 수립하였으며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공계 연구장학생 제도는 창조적 잠재력이 풍부한 이공계 석·박사 과정생들이 논문주제를 자발적으로 선정하고 직접 연구책임자가 되어 연구결과물을 산출하는 매우 독특한 제도로서 11월초 사업시행공고를 하고 12월 중에는 선발평가를 실시하여 연구장학생을 선발할 예정이다.

이번 선발예정인원은 총 510명(석사과정생 350명, 박사과정생 160명)으로, 소속대학 총장의 추천을 받아 신청할 수 있다. 연구장학생 신청자는 2006년 현재 국내 대학교의 이공계분야 석·박사 과정 재학생(의학계열 등은 제외)이어야 하고 타장학금을 받고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없다.

연구장학생으로 선발되면, 1인당 500만 원씩 총 2회 1천만 원의 연구장려금을 지원받게 되며 동 제도를 통해 우수인재가 이공계 분

야에서 잠재적 역량을 최대한 계발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함으로써 세계적 수준의 창의적 논문 발표를 장려하고 미래 과학기술자로서의 성장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우리 나라 기초과학 잠재력을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19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개최

- 차세대 신교통수단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실용화 사업 등 논의 -

지난 10월 26일 개최된 제19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는 △바이오 연구개발의 실용화 촉진전략(안)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실용화 사업계획(안) △민항기 국제공동개발사업 추진계획(안) △중자 산업발전 중장기계획(안) 등 4개 안건이 상정되어 논의됐다.

이중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실용화 사업계획(안)'은 자기부상열

차의 기술개발과 시범노선구축에 관한 방안을 담고 있다.

우선 올해말 선정될 주관연구기관을 통해 시속 110km급 무인자동운전 자기부상시스템을 개발하고 이를 시험 운행하기 위한 시범노선은 지자체 등의 신청을 받아 평가를 거쳐 위치를 선정한 후 7km 이내의 선로를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본 사업은 차량경량화 등의 기술개발과 시범노선 구축 및 종합시운전 등을 병행하여 추진하게 되며 소요기간 6년에 총사업비는 약 4,50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정된다.

창립 30돌 맞은 한국기계연구원

- 기념식 개최 및 풍력핵심기술연구센터 개소 -

한국기계연구원(원장 박화영)이 창립 30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가졌다.

지난 10월 24일 동 연구원 대강당(대전)에서 개최된 기념식 자리에는 한국기계연구원 전·현직 직원, 정부출연원 원장, 기술협력기업 등 각계 주요 인사 600여 명이 참석하여 한국기계연구원 창립 30주년을 축하했다.

이날 기념식에서 한국기계연구원은 30주년을 제2의 도약을 위한 출발점으로 보고 “KIMM VISION 2015”을 선포하면서 2015년까지 ‘세계 최고의 기계·재료 전문연구기관’으로 거듭나겠다는 다짐을 하는 한편, 한국기계연구원과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10명에게 정부포상 및 과학기술부총리 표창을 수여했다.

또한 부대행사의 하나로 대전, 충남·북에 위치한 실업계 고교 및 전문대 학생과 교사(교수) 등 100여 명을 초청, 대덕연구단지를 견학토록 주선했다.

한편, 산업자원부 신재생에너지 인력양성사업의 일환으로, 국내 풍력관련 산·학·연 공동연구 및 기술지원과, 인력의 양성을 담당할 ‘풍력핵심기술연구센터’의 개소식이 지난 11월 15일 한국기계연구원 재료기술연구소(창원)에서 산·학·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개소식은 산업자원부를 비롯한 에너지관리공단, 한국풍력에너지학회, 한국풍력기술개발사업단 및 참여기업 등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연구 1동 강당에서 가진 후 현판식과 아울러 구축된 센터의 시설을 관람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풍력핵심기술연구센터’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인력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을 예상한 정부가 지난 8월에 지정하였으며, 2004년 12

월 대체에너지법 전면개정시 신재생에너지[제30조]에 인력양성을 위한 핵심기술연구센터, 특성화 대학 지정 및 지원을 규정한 것에 따른 것이다.

이 연구센터는 특성화대학원과는 달리 기술 및 기반구축을 통하여 기업과 공동연구 및 기술적 지원을 하고 인력양성을 수행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올해부터 5년간 정부가 69억 원을 지원하고, 민간부문에서는 12개의 참여기업과 주관기관에서 현금 및 현물 출자로 44억 원을 부담하여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센터사업 책임자인 황병선 박사는 “세계의 풍력산업 시장이 매년 25% 정도 성장하고 있는 이 때, 관련 분야 연구 개발에 기반을 둔 기업 기술지원 및 전문화된 현장인력의 양성은 풍력산업을 우리나라의 성숙된 중공업 기반의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으로 이끄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본 사업에는 이미 추진중인 MW급 풍력시스템 국산화기술개발에 노력중인 (주)효성, 두산중공업(주), 유니슨(주) 등 주요 시스템업체 등이 참여하고 있다.

내년 7월부터 국제기준 GMP제도 도입

- 신약, 전문약, 일반약, 원료의약품순 단계적 시행 -

의약품을 제형별 관리에서 품목별 관리 체계로 전환하는 내용의 새 GMP(우수의약품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제도가 내년 7월부터 신약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최근 식약청이 내놓은 ‘국제기준 GMP 개정(안)’ 개정안에 따르면 새 GMP 기준에 대한 세부지침을 오는 12월까지 확정하고 연내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 내년 7월부터 2009년 7월까지 품목별 의무화 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청의 이번 조치는 현행 국내 GMP제도가 선진국에 비해 크게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GMP 핵심인 밸리데이션(제조 공정, 시험, 기계설비 또는 시스템이 기준에 적합한 결과가 일관되게 얻어진다는 것을 검증하는 제도)의 도입과 함께 허가전 품목별 사전 GMP 실사를 의무화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10년 후 뜨는 직종은

앞으로 10년 후 높은 임금과 좋은 사회적 대우를 받을 직종에 컴퓨터 보안전문가와 항공기 정비원, 기업 임원 등이, 취업이 손쉬운 직종으로는 손해사정인과 통역가 등이 지목됐다.

이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357개 직업에 대해 분야별 30여 명

한국원자력연구소 부지내 '고준위폐기물 지하처분연구시설' 준공



과학기술부는 한국원자력연구소내 부지에서 '지하 연구시설(KURT: KAERI Underground Research Tunnel)' 준공식을 갖고 시설을 공개한다고 최근 밝혔다. KURT는 향후 고준위 폐기물 처분장이 건설될 경우에 대비해 개발중인 한국형 처분 시스템의 타당성과 안전성 적합성을 실험적으로 검증하는 기초 연구시설이다.

과학기술부는 한국원자력연구소내 부지에서 '지하 연구시설(KURT: KAERI Underground Research Tunnel)' 준공식을 갖고 시설을 공개한다고 최근 밝혔다. KURT는 향후 고준위 폐기물 처분장이 건설될 경우에 대비해 개발중인 한국형 처분 시스템의 타당성과 안전성 적합성을 실험적으로 검증하는 기초 연구시설이다.

KURT는 1997~2002년간 과학기술부의 원자력중장기 연구결과 고준위 폐기물 기준처분 시스템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2003년 1월 한국원자력연구소 부지내에 기준처분 시스템을 실험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시설을 건설키로 함에 따라, 2005년 3월 착공해 총 사업비 34억 원을 투입하여 1년 8개월 만에 준공식을 갖게 된 것이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 운전중인 원전은 20기로 2005년말 현재 원자력 발전소 4개 부지(고리, 영광, 월성, 울진)에서 연간 700여톤의 고준위폐기물이 나오고 있어 이를 보다 안전하고 깨끗하게 처분하기 위한 확보를 현상학적으로 입증하려는 것이다.

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각 직종의 10년 후 인력수급, 임금, 사회적 위상을 질문해 얻은 결과다.

조사 결과 2015년에 지금보다 임금이 가장 높아질 직업으로는 컴퓨터 보안전문가(5점 만점에 4.41점)가 꼽혔고, 기업 임원, 항공기 정비원, 산업용 로봇 조작용, 컴퓨터 시스템 설계자, 해외 영업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임금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 직업으로는 노점 및 이동판매원(2.59점)이 1위였다.

다음으로 주유원, 계산원·매표원, 방문판매원, 매장정리원, 농림어업 관련 단순노무자, 법무사 및 변호사 순이었다.

내 손안의 RFID시대 막 열어

정보통신부의 IT839 정책 중에 RFID(무선인식) 리더 기능을 가진 휴대폰을 이용하여 상품정보 등을 손쉽게 획득할 수 있는 서비스가 마침내 선을 보인다. 정통부 관계자와 모바일 RFID 시범사업자 및 모바일 RFID 포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모바일 RFID 시범서비스 개통식이 개최되어 본격적인 시범서비스에 돌입했다.

이번 개통식에서는 ▲SK텔레콤의 u-포탈서비스(음반판매 매장 등에 RFID 태그를 부착하여 디지털 콘텐츠를 감상) ▲KTF의 와인정보 제공서비스(와인병에 RFID 태그를 부착하고 핸드폰으로 와인의 종류, 시음방법 등 관련 정보를 제공) ▲u-스테이션서비스(버스 정류장의 RFID 태그를 통해 버스 도착정보 및 주변 지역정보를 제공) 등을 선보였다.

또한, 택시안심서비스(택시에 부착된 태그를 읽어 택시정보를 쉽게 조회하고 부모, 친구 등에게 승차 정보를 전송)를 비롯하여 식품, 의약품, 한우, 관광지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부문 서비스를 12월까지 오픈하여 일반인들이 생활 속에서 모바일 RFID를 경험하게 할 계획이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모바일 RFID는 기존 RFID 서비스를 물류·유통 등 B2B 위주에서 B2C 영역까지 확대함으로써 국내 RFID 보급·확산을 촉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보통신부는 지난 6월 모바일 RFID 시범사업자로 SK텔레콤과 KTF를 선정하여 사업에 착수하였고 4개월여의 준비 끝에 세계 최초로 시범서비스를 개시하게 되었다.

모바일 RFID 시범사업은 세계 최초로 900MHz 대역의 모바일 RFID를 우리기술로 개발했다는 점과 RFID 수요활성화를 위해 B2C 부문 RFID 신규시장을 창출하고 이를 통해 RFID 시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언말까지 네트워크 기반 로봇 1천20대 시범 서비스

- KT 메가패스망으로 로봇 지원 -

정보통신부는 지난 10월 25일 KT광화문지사서에서 유비쿼터스 로봇 시범서비스 행사를 열고 URC로봇 시범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URC 시범사업의 주관사업자인 KT는 지난달 모집한 고객체험단 1천 가구와 인천·김포 공항, 서울역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약 두 달간 시범서비스를 진행할 계획이다.

시범서비스에는 총 7종(가정용 5종 1천대, 공공용 2종 20대), 1천 20대의 로봇이 투입되며 재원은 정부가 35억 원을, 13개 시범사업 협력업체가 35억 원을 각각 분담한다.

일반 가정에 배치될 로봇은 메가패스·네스팻을 통해 뉴스, 날씨, 홈모니터링 등의 공통 서비스 외에 구연동화, 영어, 노래방, 음악감상, 요리 정보 등 20여종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공공 부문에 배치될 로봇은 공공기관내 위치안내 및 연계 교통·관광 정보 서비스, 운항정보 서비스, 생활정보 서비스, 기념촬영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시범서비스 가구에 배치될 로봇의 경우 주요 기능이 어린이 교육 서비스인 점을 감안, 영·유아와 초등자녀가 있는 가구 위주로 선정됐다.

정통부 관계자는 “시범서비스를 통해 실수요자 중심의 로봇 서비스 모델을 발굴하고 이용자의 반응을 사전에 점검할 예정”이라면서 “향후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100만원대의 국민로봇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상용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립농업유전자원센터 개관

국내외 농업 유전자원 50만 점을 보존할 수 있는 국립농업유전자원센터가 문을 열었다.

경기도 수원시 서둔동 농촌진흥청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9천507㎡ 규모로 들어선 유전자원센터는 리히터 규모 5의 지진에도 견딜 수 있는 내진 설계와 유전자원의 입출고를 로봇이 담당하는 등 첨단 시설을 자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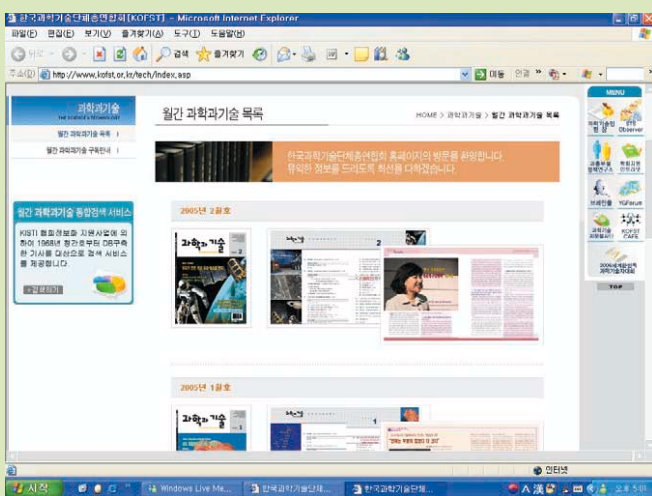
유전자원센터는 10년 내외의 중기 및 100년의 장기저장과, 최고 영하 196℃의 초저온 저장 시설 등을 갖추었다.

농진청은 그 동안 정부가 여러 곳에 나눠 관리해온 15만여 점의 종자와 해외에서 들어오는 유전자원 등을 센터에 보존,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며, 아시아 지역 유전자원을 대리 보관하는 유전자원 허브뱅크로서의 역할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㉔

정리 | 이창규 _ 과총 미디어팀장 lck@kofst.or.kr

社告(알림)

월간 '과학과 기술'! 이제 온라인(웹)상에서도 만나 볼 수 있습니다



지난 1968년 창간된 이래 38년간 발행되어 온 월간 '과학과 기술'을 이제 온라인 웹상에서도 만나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사내용을 연도별, 월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았으며, 검색창을 활용하면 분야별, 필자별 검색은 물론 인쇄출력까지도 가능하도록 하여 과총 회원과 애독자, 그리고 과학기술인 여러분의 수요에 한발짝 다가가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번 월간 '과학과 기술' 기사검색 시스템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협회정보화사업의 지원을 받아 구축했습니다. 앞으로 더욱 사랑받는 잡지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아울러 독자여러분의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서비스 개시일 : 2006년 12월 1일
· 서비스 제공범위 : 1968년 창간호부터 최근 1년전까지의 기사 검색 및 출력
· 열람 대상 : 제한 없음/무료
· 열람 방법 : 한국과총 홈페이지(www.kofst.or.kr) - 하단 월간 '과학과 기술' 배너 클릭

<월간 '과학과 기술' 편집실>